

SK케미칼, 수원공장 스테미너왕 선발

SK케미칼 수원공장이 최근 사원을 대상으로 체력장을 실시해 <스테미너왕>을 뽑는 행사를 치러 눈길을 끌고 있다.

SK케미칼에 따르면, 체력장은 연령대별로 악력 등 근력은 물론 윗몸일으키기 등을 통한 근지구력, 제자리높이뛰기를 비롯한 순발력 테스트 등 모두 6개 종목을 측정해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여기에 체중, 골격근, 지방 분포도, 체지방, 내장 지방률까지 측정하고, 운동상태와 식습관, 흡연 및 음주 정도 등 모두 27개 문항에 걸친 건강 설문조사도 실시했다.

SK케미칼은 직원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행사를 가졌으며, “50대 스테미너 챔피언으로 뽑힌 한 사원(52)은 평소 등산을 통해 체력을 다져 20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건강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사내에서 화제가 됐다”고 소개했다.

<화학저널 2007/05/11>